

한국어 수사의 어원에 관한 수학적 조망: 하나에서 열까지

경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박교식
pkspark@gin.ac.kr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수사 하나, 둘, ..., 열의 어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수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조망했다. 수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 둘, 셋의 어원을 찾는 일은 사실상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셋과 넷, 넷과 다섯 사이에는 단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 둘, 셋, 넷의 어원은 다섯, 여섯, ..., 열의 어원과는 다른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여섯과 일곱 사이에 단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곱, 여덟, 아홉의 조어 메커니즘은 동일할지 모른다. 아홉과 열 사이에 단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절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고 있으나, 수학사에 따르면 수사의 발달에는 여러 번의 단절이 존재했다.

주제어: 수사, 수사의 발달, 수사의 어원, 수학적 관점

I. 서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수사 하나, 둘, ..., 열의 어원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알려져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수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하나, 둘, ..., 열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그것의 어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 둘, ..., 열의 어원 추정에는 과감한 가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한글 문헌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15세기 이전의 한국어 수사의 어원에 관한 주장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가설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민족의 기원을 알 수 있다면, 한국어의 기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민족의 기원에 관해서는 외래기원론과 토착기원론이라는 거의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16]). 따라서 현재로는 한민족의 기원을 통해 한국어 수사의 어원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언어학적으로 볼 때,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

지만 단언할 수는 없고([14]), 더욱이 세계의 언어학계에서는 한국어를 고립어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2]). 이것은 한국어 수사의 어원을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의 수사 어원을 통해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거나 또는 심지어 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이유에서든 한반도에 정주해서 수사를 어떤 형태로든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사용했던 수사가 현재까지 아무 변화도 없이 그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로는 음운변화(音韻變化)가 여러 차례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 현재의 수사 어형은 과거의 수사 어형으로부터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문헌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음운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에 최초로 정주했던 그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음운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수사의 어원 추정에 관한 연구에는 현재의 수사 어형에 과거의 수사 어형의 적어도 일부는 어떠한 형태로든(어간이나 어근으로 남아 있든, 아니면 음운대응에 의해 변했든) 여전히 남아 있다는 가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 둘, ..., 열에 남아 있는 과거의 수사 어형의 일부를 확실히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헌으로 남아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실제로 조선시대(1392-1910)에 속하는 15세기까지는 수사를 사용했던 한글 문헌이 많이 있으므로, 그것으로부터 15세기의 수사 어형을 확실히 찾을 수 있다. 15세기 이전의 한글 자료는 존재할 수 없지만, 중국의 한자 자료나 일본의 가타카나 자료를 이용하여 고려시대(918-1392)에 속하는 12세기의 수사 어형을 재구(再構) 형태로 찾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러한 재구를 인정하면, 다시 그것을 바탕으로 그 이전의 수사 어형을 역시 재구 형태로 찾는 것이 가능하다. 이두(吏讀)로 적은 문헌의 해석을 통해 대략 통일신라시대(676-935)에 속하는 8-9세기에 사용했던 수사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어 수사의 기원적인 어형의 추정에서 문헌 자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다. 문헌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국어사 학자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비교 연구, 내적 재구, 방언학이다([14], p.13).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문헌으로 확인할 수 없는 8-9세기 이전의 수사를 추정할 수 있겠지만, 그 추정이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도를 넘어 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수학사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한국어 수사의 어원 연구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수학사에서는 수학적 개념으로서의 수의 발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수의 추상이 이루어져 수를 나타내는 단어 즉, 수사가 출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는 대개 나라마다 다르다. 이제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수사를 통칭하기 위해 <하나>, <둘>, ..., <열>이라는 표기를 사용하기로 하자. 어느 나라에서든 수사의 출현은 너무도 오래 전의 일이라,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 세계의 수많은 수사열(數詞列) <하나>,

<둘>, ..., <열>의 발달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더욱 그렇다.¹⁾ 그런 만큼 이 분야의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언어 간의 관계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드물게 있을 뿐이다([23], [25], [26]).

<하나>, <둘>, ..., <열>이 동시에 모두 발생했는지, 아니면 앞의 몇 개만 먼저 발생했고, 나머지는 시차를 두고 나중에 발생했는지 어떤지 잘 모른다. 그 중 어떤 것은 동일 어족에 속하는 언어의 수사를 차용한 것일 수도 있다. 아마도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 거쳐서 수사열 <하나>, <둘>, ..., <열>을 완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그럴 듯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수학사자들은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자료로 삼는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사들이 보여주는 규칙성 또는 불규칙성, 유사성 또는 비유사성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수학사자들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의 합리적인 추상 과정을 재구성함으로써 수사의 역사를 복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이 한국어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기에, 이 연구에서는 수학적 관점에서 국어사적인 연구 결과를 조망한다. 이러한 조망은 한국어 수사의 어원을 찾는 데 일조할 수 있다.

II. 한국어 수사의 문헌상의 변천

세종(1397-1450)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1443년 이후로는 많은 한글 문헌에서 수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6]), 이러한 문헌을 통해 1443년 이후의 수사 어형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김광해는 15세기 이후의 문헌에서 현재의 하나, 둘, ..., 열에 해당하는 어형을 찾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6]). 이 중에서 밑줄 친 수사는 후기 중세국어(15세기-16세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기문은 ‘하나ㅎ, 둘ㅎ, 세ㅎ, 네ㅎ, 열ㅎ’을 각각 ‘하냥, 둘, 쌩, 넝, 열’으로 표기하고 있다([14], p.159).

[하나] 하나ㅎ, 하나, 하나ㅎ, [둘] 둘ㅎ, 두을, 두을, 둘, [셋] 세ㅎ, 셋, [넷] 네ㅎ, 넷, [다섯] 다섯, 다손, 다섯, 다스, [여섯] 여섯, 여손, 여습, 여섯, [일곱] 닐곱, 닐곱, [여덟] 여듭, 여듭, 여듭, [아홉] 아홉, [열] 열ㅎ

고려의 수사는 송나라(960-1279)의 손목(孫穆)이 저술한 《鷄林類事》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는 고려의 수사가 당시의 한자로 기록되어 있다([4], pp.36-39). 명나라(1368-1644) 때 편찬한 《朝鮮館譯語》에도 15-16세기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수사가 당시의 한자로 기록되어 있다([5], pp.132-133). 일본 가마쿠라(鎌倉) 시대(1192-1333) 초기에 만들어진 13권짜리 백과전서인 《二中曆》을 통해서도

1) 수사열 대신 ‘수열’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수열 대신 수사열이라고 했다.

고려의 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12권인 《譯語曆》에 고려의 수사가 당시의 가타카나로 쓰여 있다. 츠지(辻星兒)는 《二中曆》에서 12세기 또는 그 이전의 자료를 참고하여 고려의 수사를 적었을 것으로 추정했다([13]). 12세기 전반(또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의 고사서 《世俗字類抄》에도 고려의 수사가 당시의 가타카나로 수록되어 있다([13]). 중국과 일본의 이러한 문헌을 통해서 고려의 수사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鷄林類事》의 고려 수사를 재구한 형태는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동소이하다. 이 중에서 강신항이 재구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4], pp.36-39).

[하나: 河屯] 하屯, [둘: 途孛] 둘ㅎ, 두불, [셋: 洒廡乃切] 세ㅎ, [넷: 酒] 네ㅎ,
 [다섯: 打戊] 다섯, [여섯: 逸戊] 여섯, [일곱: 一急] 일곱, [여덟: 逸答 또는 逸
 答] 여덟, [아홉: 鴉好] 아홉, [열: 噎] 열ㅎ

이런 식으로 고려 수사의 어형을 재구 형태로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려시대 이전에 사용했던 수사 어형을 재구 형태로 모두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고구려(BC37-668) 수사로 현재의 셋, 다섯, 일곱, 열에 해당하는 네 개가 알려져 있지만, 그 어형이 중세(10세기-16세기)의 어형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수사가 고구려의 수사를 계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신라(BC57-935) 수사로 는 하나, 둘, 천에 해당하는 세 개가 알려져 있다. 이기문은 신라 경덕왕(?-765) 때의 향가인 도천수관음가와 제망매가, 신라 헌강왕(?-886) 때의 향가인 처용가에 사용된 수사의 용례로부터 신라 수사의 어형과 전기 중세국어(10세기-14세기)에서의 수사 어형이 거의 일치한다고 보았다([14], pp.91-92).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비록 어형 변화는 있지만, 적어도 8-9세기의 신라 시대에서는 현재의 수사와 거의 동일한 수사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 옳다고 하면, 신라의 건국 초기에 사용했던 수사도 8-9세기에 사용했던 수사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한국어 수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III. 한국어 수사의 기원적 어원 추정의 현황

조규태에 의하면, 한국어 수사의 어원을 밝히려고 시도한 최초의 사람은 일본인 시라토리(白鳥庫吉)이다([17]). 그런데 만약 시라토리의 연구가 1909년에 발표되었다면, 연도로는 한국의 국권 회복 운동에 적극 협력했던 미국인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1939)의 연구가 4년 앞선다. 그는 1905년에 출판한 《A comparative grammar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Dravidian language of India》에서 한국어 수사의 어원을 밝히려고 했다. 헐버트는 한국의 선주민 중 일부는 인도의 드라비

다 지역에서 이주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그리고 드라비다어가 아직 원시 상태에 있을 때 한국어와 드라비다어가 분기되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하나, 넷, 일곱과 각각에 해당하는 드라비다어 수사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22], 서문, pp.89-98). 그는 타밀어 <하나>의 기원적 어근에 한국어 하나의 한(han)이 대응하고, h가 후대에 나타난 것으로 볼 때 han은 an이고, 그것이 타밀어 <하나>에 해당하는 or 또는 on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했다. 드라비다어 <넷>의 어근은 nal이고, 투르크 방언에서는 na만 남는 바, 이것은 나홀의 '나'와 관련이 있고, 그것이 넷에 대응한다고 추정했다. 드라비다어 <일곱>의 어근은 er 또는 el이고, 이것에 대응하는 것은 일곱의 '일'인 바, er는 '일어나다'를 뜻하는 동사 eru에서 온 것으로 또, 일곱의 '일'도 '일어나다'의 어간 '일'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어와 드라비다어의 관계는 현재 별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11]), 헐버트의 연구가 한국어 수사의 어원 연구에 한 방향을 제시한 것은 분명하다. 헐버트의 견해는 강길운으로 이어진다([2], [3]). 그는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쓰던 드라비다어가 가야어에 영향을 미쳤다는 가정 아래 하나, 넷, 일곱, 여덟에 한정하여 드라비다 수사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넷과 일곱에 대한 강길운의 견해는 헐버트의 견해와 일치한다. 강길운은 타밀어 <여덟>을 나타내는 수사 ettu에 여덟이 대응한다고 보았다. 헐버트와 강길운의 주장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드라비다 또는 아유타국으로부터 한반도로의 이주가 입증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는 가설일 뿐이다.²⁾

헐버트는 셋의 '세'는 '쌍다'의 '쌍'에서, 다섯의 '담'은 한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접는 '달렸다'에서, 여섯의 '여 또는 열'은 한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접었다가 새끼손가락을 펴는 '열다'에서 온 것으로, 열은 한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접었다가 다시 손가락을 모두 펴는 '열다'에서 온 것으로 추정했다. 또, 타밀어 ettu가 열에서 둘을 빼는 과정을 나타낸다고(즉, 감수법) 보는 견해도 있지만, 한국어 여덟에는 그러한 개념이 없다고 보았다. 드라비다어 <아홉>은 열에서 하나를 빼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한국어 아홉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 대신 구월산을 아사달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아홉 이전에 '아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22], pp.89-98). 시라토리가 열의 어원이 '열다'일 것이라고 추정한 것([17], 재인용)은 헐버트의 견해와 같다.

핀란드의 알타이 언어학자인 람스테트(Gustav John Ramstedt, 1873-1950)는 1949년에 출판한 《*Studies in Korean Etymology*》에서 다섯(tasat)의 '다(ta)'는 '달다'와, 그리고 '섯(sas 또는 sjs)'은 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여섯(jesit)과 여덟(jedilp/jedip/jedil)의 '여(je)'와 '열(jel)'은 모두 '열다'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여

2) 《삼국유사》에 실린 <가락국기>에는 김수로왕의 왕비 허왕옥(또는 허황후)이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기록이 있다. 허왕옥은 김해 허씨의 시조이다. 이것이 '허황후설화'이다. 김병모에 의하면([8]), 허왕옥은 인도의 아유타국 출신으로 중국 사천성의 지방 도시인 보주(지금의 안악)에서 살다가 가락국으로 왔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천년의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허왕옥과 그 일행이 아유타국 및 보주에서 사용했던 수사를 가락국에서 널리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셋의 ‘셋(sjt)’도 다섯의 ‘섯’과 마찬가지로 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일곱 (nilgop/ilgop)의 ‘곱’은 ‘구부리다’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덟은 ‘jed+tu+접사’로 보아 ‘둘 적은 열’ 또는 ‘둘 제외한 열’로, 그리고 아홉(ahop)은 ‘작은 것 하나를 구부린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 이외에 하나, 둘, 셋을 만주어, 몽고어, 통구스어의 해당 어형과 각각 비교하고 있다. 특히 하나와 아이누어 shine, 둘과 아이누어 tu를 대응시키고 있다([28], p.60, pp.76-77, p.167, p.225, pp.258-259, pp.274-275). 다섯, 여섯, 열의 어원에 대한 추정은 헐버트의 견해와 같다. 조규태는 람스테트가 다섯의 어원을 ‘단’에 두고, 그 어근을 ta로 보는 것은 재고해야 하며, 여덟에 대한 설명이 그럴 듯하지만, 다른 단어들의 형성을 설명할 수 없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다([17]). 서정범은 국어에서 동사의 어간이 그대로 명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들어 열에 대한 람스테트의 견해에 찬성하지 않았다([12], p.335).

최창렬은 한국인이 한 손의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면서 수를 센다는 것에 착안하여 하나, 둘, …, 열의 어원이 손가락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한국어 자료만을 사용해서 의미론적 탐색을 시도했다([19], pp.119-170). 그는 ‘흐든’은 ‘훈’의 관형형으로 ‘흐은’이 줄어든 것이고, 그것은 ‘혼자’를 의미하는 ‘흐븨샤’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엄지 한 낱을 꼬부리며 세기 때문에 ‘훈+낱’이 되고, 그것이 ‘흐나’로 줄었다가 ‘하나’가 된 것으로 보았다. 이때 ‘낱’은 곡식 한 낱알을 의미하는 ‘낱’이 변한 것이다. 塗孛를 ‘두블’로 재구하고, 그것이 엄지 위로 검지를 덮는다는 뜻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뎡다’의 옛 어형인 ‘뎡다’의 ‘뎡’과 어미 ‘을’이 결합한 ‘뎡+을’이 ‘두블’이 되었다가 ‘둘’이 된 것으로 보았다. 洒廝乃切를 ‘싯’으로 재구하고, 그것이 중지가 검지와 약지 사이에 있다는 뜻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사이’의 옛 어형인 ‘스이’ 싯으로 바뀌어, ‘스이’를 거쳐 ‘서이’로 바뀌고, 그것이 ‘세, 셋’이 된 것으로 보았다. 灑을 ‘네’ 또는 ‘네’로 재구하고, 그것이 약지를 하나 더 넣어서 꼬부린다는 뜻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즉, ‘넙다’의 ‘넙’을 사용해서 ‘넙이’라고 중얼거린 것에서 ‘네이’가 만들어 지고, 그것이 ‘네, 넷’이 된 것으로 보았다. 打戍을 ‘다순’ 또는 ‘다숫’으로 재구하고, 그것이 다섯 손가락을 주먹으로 쥐어 닫는다는 뜻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닫다’의 어근 ‘닫’을 ‘닷’의 어형으로 사용하고, 그것이 ‘닷은’ 또는 ‘다스’을 거쳐 ‘다숫’ 또는 ‘다숫’으로, 그리고 그것이 다섯이 된 것으로 보았다. 逸戍을 ‘여순’ 또는 ‘여숫’으로 재구하고, 그것이 무명지를 펴서 주먹을 연다는 뜻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특히 주먹을 다 연다는 뜻에서 열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하기 위해 ‘열’을 ‘옛’의 어형으로 사용하고, 그것이 다섯의 어형 변화를 닮아 여섯이 되었다고 보았다. ‘닐곱’은 무명지를 편 다음, 다시 약지를 펴기 때문에 두 손가락은 연이어서 일으켜져 있고, 다른 세 손가락은 여전히 굽혀져 있다는 뜻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즉, ‘일으키다’를 의미하는 ‘닐’과 ‘굽히다’를 의미하는 ‘굽’이 결합한 ‘닐+굽’이 일곱이 된 것으로 보았다. ‘여덟’은 열에서 아직 둘이 모자란다는 뜻의 ‘열+둘+없음’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아홉은 열에서 하나가 모자란다는 뜻의 ‘열+하나+없음’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열은 손을 활짝 ‘열다’의 ‘열’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다섯과 여섯에

대한 견해는 헐버트 및 램스테트의 견해와 같다. 일곱에 대한 견해는 헐버트와 램스테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덟에 대한 견해는 헐버트의 견해와는 다르지만, 램스테트의 견해와는 같다. 아홉에 대한 견해는 부분적으로 램스테트의 견해와 같다. 열에 대한 견해는 헐버트 및 램스테트의 견해와 같다. 최승렬([18], pp.62-70)과 최창렬의 견해는 거의 같다. 다만, 최승렬은 여덟이 '열다'에서 의전(意轉)되었고, 아홉은 어원미상이라 하고 있다.

김병호는 하나, 둘, 셋, 넷은 우리 조상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리안 계통의 언어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했다([9]). 그는 둘, 셋은 아리안어와 정확히 일치하며, 하나의 어원도 그리스어, 다리어(Dari), 산스크리트어와 어원이 같다고 보았다. 하나는 '처음'이라는 뜻에서, 둘은 하나에 또 하나를 더한다는 것에서, 셋은 하나에 하나를 더하고 다시 하나를 더하면 '새로워' 진다거나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것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우리 조상들이 먼 소아시아 지방에서 한반도로 이동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은 아리안어와 유사하지만, 넷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민족의 이러한 이동은 아직 가설일 뿐이다. 그는 넷이 아리안 계통의 셋으로부터 '내렸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다섯부터는 우리 조상들이 독자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손가락을 사용하는 동작과 형태 등과 관련이 있다는 가정 아래 그 어원을 추정했다. 다섯은 한 손의 손가락을 '다 썼다'는 것에서, 여섯은 손가락이 열려서 곧바로 서 있는 모양 즉, '열려서 서 있다'라는 것에서, 일곱은 여섯을 셀 때 세워졌던 손가락과 더불어 곱으로(두 개로)일으켜 세워진 모양 즉, '일어서서 곱으로 세워졌다'는 것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여덟은 열이 거의 다 되어 간다. 즉, '여물어간다'는 것에서, 아홉은 '열이 아니다' 혹은 '열이 되기에는 아직도 흡족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여기서 여덟과 아홉에 대한 설명이 의미 있으려면 열이 여덟과 아홉에 앞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 바, 김병호는 열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장 큰 수로 세상 모든 것을 가리키는 낱말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섯과 여섯에 대한 견해는 헐버트 및 램스테트와 거의 같다.

조규태는 한국어 수사의 어형이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에서의 수사 어형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한국어 자체의 자료를 사용해서([17]), 서정범은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의 수사 어형과의 비교를 통해서([12], pp.317-338) 하나, 둘, ..., 열의 기원적 어형을 재구하고 있다. 이들이 재구한 것은 각각 다음과 같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재구한 어형을 의미론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조규태([17]): 혼, 둘, 살, 날, 닳, 엇, 널구, 여들, 아호, 열

서정범([12]): 혼, 둘, 션, 널, 단, 열, 닳, 널, 안, 널

한편, 시라토리는 퉁구스어와 만주어와의 비교를 통해 하나의 의미론적 기원을 '꼭대기'로 추정했다([17], 재인용). 이기문은 하나에 대해 한쪽(즉, 片)의 의미를 가진 일

본어 kata, 에벤키어 kalta, 몽고어 qaltas를 그 대응형으로 보고, 람스테트는 kata, kalta, qaltas를 ‘가르다’의 대응형으로 보았다([15], 재인용). 이남덕은 이에 근거하여 ‘하나’의 의미론적 기원을 ‘가르다’로 보았다([15]). 그러나 강길운은 모음의 대응을 도외시하고, t와 n의 대응도 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견해에 반대했다([1]). 김동소는 둘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통구스어의 방언형과 비교하고 있다. 그는 이 비교를 통해 둘의 기원적 어형으로 dūr을 재구하고 있다. 또, 노스트라틱(Nostratic) 가설에 따르면 du-로 소급하여 재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7]).

IV. 수학사에서의 수사 어원 추정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수사열 <하나>, <둘>, ..., <열>이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현재의 수사열을 구성하는 각각의 수사 어형에 과거의 수사 어형이 적어도 일부는 남아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현재의 수사 어형을 세밀히 관찰하여,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단편적인 자료를 근거로 그 발달의 과정을 부분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수사의 출현은 ‘문화적 스트레스’([30])에 의한 것이다. 확실히 전 세계의 수많은 수사열이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25], p.64), 때로는 이런저런 수사열의 발달에서 상당히 유사한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수사열이 결코 처음부터 현재처럼 완전한 형태로 탄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메닝거(Karl Menninger, 1898-1963)는 현재의 완성된 여러 수사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몇몇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수사열이 완전한 형태로 갑자기 출현했던 것이 아니라, 한때는 무계획적으로, 그리고 그 뒤 언제부터인가는 계획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출현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26], p.15).

수사열이 <하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를 추상화된 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학적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가 비록 모든 수사열의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그 <하나>를 추상화된 수 개념으로서의 <하나>라고 볼 수는 없다. <하나>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것은 사물로부터 분리된 추상적인 수로서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물과 결부된 것으로서의 <하나>로 존재했다. <하나>를 수로 인식한 것은 수의 개념이 <하나>보다 더 큰 수까지 정립된 후에, 그것으로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과정에 의한 것이다([26], pp.34-41). 그러나 왜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어느 문화권이 되었든, <하나>는 틀림없이 의미 있는 그런 단어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유럽어족의 경우 <하나>는 지시대명사 this 또는 인칭대명사 I 또는 ‘유일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26], p.32, pp.210-211).

인도-유럽어족의 경우 <둘>이 지시대명사 the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인도-유럽어에서 수사 duyo는 독일어 du나 영어 thou 즉, ‘너’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너’는 ‘내가 아닌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분법을 통해, 이전에는 <하나>이었던 것이 <하나>와 <둘>로 나뉘게 되었다. 인류가 <둘>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세기 과정에서 가장 큰 수이었고, 인류가 가장 오래 머문 지점이다. 인류는 <둘>로 전진한 이후에 휴식기를 가졌다([25], p.18; [26], pp.25-31).

<하나>와 <둘>은 수사열의 다른 수사들과는 다른 특별한 수이다([26], p.31). <둘>로 전진한 후의 휴식기로부터 어떻게 <셋>으로 나가게 되었을까? 인도-유럽어족의 경우 <셋>이 지시대명사 that 또는 인칭대명사 he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6], pp.32-33, p.210). 특히 <둘>을 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 많음 ’이 <셋>으로 고정되었을 지도 모르고([25], pp.16-18), 또는 ‘~을 넘는’을 의미하는 단어가 <셋>으로 고정되었을 지도 모른다. 20세기 초에도 많은 원시 부족들이 <둘>을 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대개 ‘ 많음 ’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다([23], pp.5-6; [25], p.14). 20세기 후반에도 그런 부족이 보고된 바 있다([20], p.66). <둘>은 <셋>의 등장으로 그 독특한 지위를 잃고, 다른 수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었다([26], p.33).

<셋>으로의 전진이 수사열의 무한한 진행을 가능하게 한 계기가 되었지만([26], p.33), <셋>에서 <넷>으로의 전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메닝거는 인도-유럽어족의 많은 수사열에서 <하나>, <둘>, <셋>, <넷>까지만 형용사처럼 사용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하나>에서 <넷>까지는 형용사이었지만, <다섯> 이후의 수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열이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특히 이 처음 네 개의 수사가 먼저 만들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는 <하나>, <둘>, <셋>, <넷>을 형용사로 사용한 것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26], pp.40-48). 그가 제시한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인간이 네 개보다 많은 사물의 개수, 심지어는 세 개보다 많은 사물의 개수를 눈으로는 즉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에 주목해 보자. 인간이 눈으로 사물의 개수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subitizing)([21], p.68)의 한계는 사실상 네 개이다([23], pp.6-7; [25], pp.20-21).³⁾ 즉, 네 개까지는 사물의 개수를 헤아리지 않고도 한 눈에 그 개수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개 이하의 사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몇 개인지 알기 위해서 추상적인 수사를 고안할

3) 어떤 심리학 사전에서는 그 한계를 일곱 개 내지 여덟 개라고 소개하고 있다([29], p.765). subitizing 능력이 천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럴지도 모른다. subitizing에 해당하는 한국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직산’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31]), ‘즉지하기’라고 번역하기도 한다([10]). ‘직산’에서 ‘산’이 계산을 의미하므로, subitizing의 의미를 잘 살린 번역어로 보기 어렵다. ‘즉지하기’는 즉각적으로 지각하기를 의미하는 ‘조어’이다. 한편, 이프라(Georges Ifrah, 1947-)의 《Histoire universelle des chiffres》(1988)의 일본어 번역판(彌永みち代, 丸山正義, 後平隆 역)에서는 ‘即時的 知覺(즉시적 지각)’ 또는 ‘直接的 知覺(직접적 지각)’이라고 번역하고 있다([24]). 한국심리학회 DB(인터넷판)에는 이 용어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34]). 이런 이유로 여기서도 subitizing의 번역어를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수사열은 <다섯>이 등장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었다. 즉, <다섯>의 등장과 함께 수사열이 만들어지면서 <하나>, <둘>, <셋>, <넷>이 수사열에 편입되고, <열>까지 나아갔을 것이다.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많은 언어에서 <다섯>은 ‘손가락’ 또는 ‘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곱>, <여덟>, <아홉>은 각각 감수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열>은 ‘두 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6], pp.40-48, p.131, p.189, p.215).

V. 수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수사의 어원 추정

메닝거는 수사를 형용사처럼 사용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넷>과 <다섯> 사이에 단절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6], pp.40-48). 한국어 수사에서도 이러한 형용사적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에는 ‘한’, 둘에는 ‘두’, 셋에는 ‘세, 서, 석’, 넷에는 ‘네, 너, 녀’이라는 관형형 있다. 다섯에는 ‘닷, 대, 댓’, 여섯에는 ‘엿, 예’라는 관형형이 있지만, 일곱, 여덟, 아홉, 열의 관형형은 찾기 어렵다. 하나, 둘, 셋, 넷과는 다르게 다섯, 여섯, ..., 열은 그 자체가 관형사이다. 이런 사실은 하나, 둘, 셋, 넷이 다섯, 여섯, ..., 열보다 먼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수사의 어원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형형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김병호가 넷과 다섯 사이의 단절을 주장하고 있던 하지만, 한국어 수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다([9]). 수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은 수사열을 구성하는 처음 네 개의 수사이지만, 그것들은 수사열을 만들겠다는 뚜렷한 계획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처음에는 수사열의 요소가 아니었다([26], pp.40-48). 하나, 둘, 셋, 넷도 그렇게 만들어 졌을 개연성이 있다.

한국어 수사 하나, 둘, 셋의 어원을 찾는 일은 지난하다. 노스트라틱 가설을 따를 때, 둘의 기원적 어형을 du-로 소급하여 재구할 수 있다는 김동소의 주장([7])이 하나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만주통구스어파와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많은 언어의 <둘>에서 du-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연으로 보아야 하는가? d음이 음운변화에 저항적이라는 것([26], p.189)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du-가 여러 어족으로 분기되면서도 현재까지 그 음운과 어형을 잘 보존해 온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한다면, 김병호의 주장처럼([9]), 하나와 셋의 어원도 각각 인도-유럽어족의 어원과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 실제로 인도-유럽어족의 서이란어파에 속하는 몇몇 언어의 <둘>, <셋>은 한국어 수사 둘, 셋과 상당히 유사하다. 다음 자료는 로젠펠더(Mark Rosenfelder)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져 온 것이다([36])⁴⁾. 각 언어의 명칭은 Ethnologue

4) [33]에 의하면 Balochi에서는 yaake, do, say이다. 또, [35]에 의하면 Kurdish에서는 yek, du, sê로 되어 있다.

를 따라 수정했다([32]).

[Dari, Zoroasterian] ya, du, sey, [Gilaki] y^ək, **du**, se, [Talysh] i, du, se,
 [Kurmanji Kurdish] yak, **du**ː, seː, [Tajiki] yak, **du**, se, [Luri] ya, **du**, se,
 [Natanzi] yæk, do, se, [Khunsari] yäg, dōː, se, [Gazi] yeg, dūː, se,
 [Sivandi], yä, do, se, [Vafsi] yey, do, se, [Sangisari] yækæ, do, shæ,
 [Mazanderani] yak, de, se, [Balochi] y^ək, do, s^əh, [Farsi] yak, do, se,
 [Fars] yek, do, se, [Lari] yak, do, se, [Kumzari] yek, doh, soh

이러한 유사성이 우연이 아니라면, 한국어 수사 하나, 둘, 셋의 어원은 인도-유럽어족에서 찾아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언어의 <하나>와 한국어 수사 하나 사이에 음운대응이 성립하는지 하지 않는지 또, 왜 서이란어파에 속하는 몇몇 언어의 <셋>에서 se가 보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어떤 정보도 없다.⁵⁾

<셋>에서 <넷>으로의 전진이 가능했던 이유를 추정하기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수사 셋에서 넷으로의 전진이 가능했던 이유도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15세기 문헌과 《鷄林類事》의 재구에서 볼 수 있듯이([4], [6]), 셋과 넷의 조어 메커니즘은 동일해 보인다. 따라서 넷이 셋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셋과 넷 사이에도 단절이 있었을 것으로, 그리고 넷은 인도-유럽어족과는 무관하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어쩌면 넷은 한국어와는 다른 언어의 <넷>과 관계가 있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우랄어족에 속하는 몇몇 언어에서 <넷>의 앞 부분은 한국어 수사 넷의 ne와 유사하다. 다음 자료는 로젠펠더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져 온 것이다([36]). 여기서도 각 언어의 명칭은 Ethnologue를 따라 수정했다([32]).

[Finnish, Tornedalia] neljä, [Ingrian] neljä, [Karelian] nell'ä, [Livvi] n'elli,
 [Ludian] njelj, [Veps] nell', [Sódjärv] n'el', [Vod] nellä, [Estonian] neli,
 [Liv] neːla, [Saami, North] njeallje, [Saami, South] niel'je,
 [Saami, Eastern] nelji, [Saami, Skolt] nellj, [Udmurt] n'il',
 [Komi-Zyrian] nyol', [Komi-Permyak] nyol', [Mari, Eastern] nilit,
 [Mari, Western] nilm, [Erzya] nile, [Moksha] nyilyä, [Hungarian] négy,
 [Khanty] n'at^ə, [Mansi] nila

이 언어들에서 <하나>, <둘>, <셋>은 인도-유럽어족에서의 <하나>, <둘>, <셋>뿐

5) 한편, 로젠펠더의 자료에 의하면 Turkmen의 <하나>, <둘>, <셋>은 yak, **du**, say이고 Chali의 <하나>, <둘>, <셋>은 i, dō, sö이다([36]). 즉, Turkmen과 Chali의 <둘>, <셋>도 한국어 수사 둘, 셋과 유사하다. 로젠펠더는 Turkmen과 Chali를 서이란어파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했지만, Ethnologue에서는 이들을 각각 알타이어족과 지나티벳어족으로 분류한다([32]).

만 아니라 한국어 수사 하나, 둘, 셋과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넷>에서만 한국어 수사 넷과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성이 우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인과 관계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넷과 다섯 사이에 단절이 있었을 것으로 가정할 때, 다섯, 여섯, ..., 열은 한민족이 독자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9]). 따라서 다섯 이후는 인도-유럽어족은 물론 우랄어족과 무관하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새로운 수사를 만들 수 있게 해 줄 어떤 매개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다([9], [19], [28]). 하지만, 다섯이 한국어와는 다른 언어의 <다섯>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몇몇 언어에서 <다섯>의 ta는 다섯의 ta와 같다. 다음 자료는 로젠펠더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져 온 것이다([36]). 여기서도 각 언어의 명칭은 Ethnologue를 따라 수정했다([32]).

[Mongolian, Halh] taB, [Mongolian, Peripheral] tav, [Buriat] taban,
 [Kalmyk-Oirat] tavn, [Yugur, East] taawyn, [Bonan] tavung,
 [Dongxiang] tawun, [Tu] taavan, [Dagur] taawyn

이 언어들에서 <하나>, <둘>, <셋>, <넷>은 인도-유럽어족, 우랄어족에서의 <하나>, <둘>, <셋>, <넷>뿐만 아니라 한국어 수사 하나, 둘, 셋, 넷과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다섯>에서만 한국어 수사 다섯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넷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러한 유사성이 우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인과 관계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수학적 관점에서는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적지 않은 언어에서 <다섯>과 <열>이 손 또는 손가락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처럼, 헐버트([22]), 람스테트([28]), 최창렬([19]) 등이 다섯, 여섯, 열이 손 또는 손가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다섯은 손가락을 ‘닫는다’, 그리고 여섯과 열은 손가락을 ‘연다’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수를 세기 위해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리는 것을 나타낼 때, 실제로는 손가락을 ‘뺌는다’라고 하지, 손가락을 ‘닫는다’라고 하지는 않는다. 또, 그 반대는 손가락을 ‘편다’라고 하지, 손가락을 ‘연다’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면, ‘닫다’는 우연히 다섯의 ‘다’와 유사한 것인지 모르고, ‘열다’도 우연히 여섯의 ‘여’ 및 열과 유사한 것인지 모른다. 한편, 수학적 관점에서는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적지 않은 언어에서 <일곱>, <여덟>, <아홉>을 감수법으로 만들어 낸 것으로 본다([26], p.131). 한국어 수사의 경우에도 여덟, 아홉을 감수법으로 만들어 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18], [19], [28]).

VI. 결론

한국어 수사 하나, 둘, ..., 열의 어원을 추정할 때, 먼저 다른 언어의 수사 어형과 비교하는 방식이 있다.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대개는 알타이계통의 수사 어형과 비교하지만, 드라비다어나 인도-유럽어족 언어의 수사 어형과 비교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의 수사 어형과 고려의 수사 어형이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한국어 자료만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이 두 방식을 각각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두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때 기원적 어형만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기원적 의미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느 방식을 사용하던 현재까지는 하나, 둘, ..., 열의 조어 메커니즘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수사 하나, 둘, ..., 열의 어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수학적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조망했다. 수학적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사열 <하나>, <둘>, ..., <열>은 어느 한 사람의 천재가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그것은 천천히 무작위로 진화한 것이다([26], p.275). 이렇게 보면 한국어 수사 하나, 둘, ..., 열도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수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그러한 단절에 충분히 주목하고 있지 않다.

수사열의 처음 세 개 즉, <하나>, <둘>, <셋>의 어원에 관해 수없이 많은 언어학적 통찰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별 소득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26], p.210). 그것은 한국어 수사 하나, 둘, 셋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쩌면 하나, 둘, 셋이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언어의 <하나>, <둘>, <셋>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1만년후의 후대 언어에는 조상 언어의 어떠한 흔적도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27], p.56). 그렇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또는 그 재구 형태를 바탕으로 하나, 둘, 셋의 어원을 찾는 일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둘, 셋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면, 셋과 넷 사이에 단절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넷과 셋의 조어 메커니즘은 동일해 보이지만, 넷의 어원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넷은 우랄어족에 속하는 언어의 <넷>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상 한민족의 기원과 이동이 밝혀지지 않는 한, 한국어 수사 하나, 둘, 셋, 넷과 다른 언어의 <하나>, <둘>, <셋>, <넷>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어떤 주장도 가설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또, 수학적적인 관점에서는 <넷>, <다섯> 사이에 중요한 단절이 있다고 본다. 한국어 수사의 경우에도 넷까지는 관형형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그 자체를 관형사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넷과 다섯 사이에 단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지 모른다. 단절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하나, 둘, 셋, 넷의 어원은 다섯, 여섯, ..., 열의 어원과 다른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섯은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의 <다섯>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또, 어쩌면 다섯은 우리 조상이 의도적으로 새로이 만들어 낸 것인지도 모른다. 전자의 경우라면

하나, 둘, 셋은 인도-유럽어족의 언어와, 넷은 우랄어족의 언어와, 그리고 다섯은 알타이어족의 언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일관성 있게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한민족의 기원과 이동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러한 설명은 불가능할 것이다. 한편, 후자의 경우라면 기왕에 사용하던 하나, 둘, 셋, 넷을 편입시킨 완성된 수사열을 만드는 과정을 일관성 있게 설명해야 한다. 이 설명에 필요한 매개체로 흔히 ‘손가락을 닫고 펴는 것’을 거론한다. 이 경우 다섯, 여섯, 열의 어원에 관해 나름대로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의 진위가 밝혀진 것은 아니다. 다섯 이후의 수사에서는 단절이 없었을까? 다섯과 여섯 그 자체를 관형사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다섯과 여섯의 관형형이 있다는 사실이 여섯과 일곱 사이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외형적으로 다섯과 여섯의 조어 메커니즘은 동일해 보이기에, 여섯은 다섯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 역시 여섯과 일곱 사이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외형적으로 일곱, 여덟, 아홉의 발음이 ‘-ㅂ’으로 끝난다는 것이 일곱, 여덟, 아홉의 조어 메커니즘이 같다는 것을 말해 줄 수 있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아홉과 열 사이에 단절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곱, 여덟, 아홉을 감수법으로 만들었다면, 일곱, 여덟, 아홉에 앞서 열을 만들었거나, 열이라는 단어가 이미 존재했어야 하지만, 현재로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

참고 문헌

1. 강길운, 삼한어·신라어는 토이기어족에 속한다: 수사·계절어·방위어의 체계적 비교, 국어국문학 68·69 (1975). 1-34.
2. 강길운, 가야어와 드라비다어와의 비교(I), 언어 3 (1982) 173-188.
3. 강길운, 가야어와 드라비다어와의 비교(III), 수원대 논문집 I (1983) 321-362.
4. 강신항, 계림유사 고려 방언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0/1991.
5. 강신항, 조선관역어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5.
6. 김광해, 국어 수사의 발달, 심재기(편),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1-14, 태학사, 1998.
7. 김동소, ‘둘’의 어원학, 어문학 41집 (1981) 15-25.
8. 김병모, 김병모의 고고학 여행2, 고래실, 2006.
9. 김병호, 이란 인도 태국에서 찾아낸 한국어의 흔적, 신동아, 2000(10월호).
10. 백순근, 김경진, 역동적 평가를 활용한 수업이 유아의 수개념 학습에 미치는 영향,

- 교육심리연구 18(1) (2004). 145-162.
11. 송기중, 국어와 알타이제어: 수사 체계의 비교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3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984) 645-655.
 12. 서정범, 서정범 전집 어학편 III: 우리말의 뿌리, 유씨엘아이엔씨, 2005.
 13. 辻星兒, 「二中歴」, 「世俗字類抄」의 韓國語 數詞에 대하여, 간행위원회(편),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527-544, 월인, 2000.
 14. 이기문, 국어사개설(신정판), 태학사, 1998/2004.
 15. 이남덕, 한국어 어원 연구 I: 원시한국어의 탐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16. 이선복, 우리민족의 기원과 형성(고고학적 관점): 민족기원에 관한 두 관점-외래기원론과 토착기원론, 공학교육 11 (2004) No.3, 98-103.
 17. 조규태, 한국어 수사의 어원과 어형 변화에 대하여, 어문학 제94집 (2006) 81-117.
 18. 최승렬, 한국어의 어원, 한샘, 1987.
 19. 최창렬, 어원산책, 한신문화사, 1993/1995.
 20. Chagnon, N. A., 야노마모: 에덴의 마지막 날들, 양은주(역), 파스칼북스, 1992/2003.
 21. Dehaene, S., *The number sense: how the mind creates mathe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22. Hulbert, H. B., 한국어와 드라비다어의 비교 연구, 김정우(역), 경남대학교 출판부, 1905/1998.
 23. Ifrah, G., *The universal history of numbers*, D. Bellos, E. F. Hardings, S. Wood, & I. Monk (trans.). John Wiley & Sons, Inc. 1981/2000.
 24. Ifrah, G., 數字の歴史, 彌永みち代, 丸山正義, 後平隆(역), 平凡社, 1989.
 25. Ifrah, G., 신비로운 수의 역사, 김병욱(역), 예하, 1985/1990.
 26. Menninger, K., 수의 문화사, 김량국(역), 열린책들, 1957/2005.
 27. Pinker, S., 언어 본능: 정신은 어떻게 언어를 창조하는가(하), 김한영, 문미선, 신희식(역), 그린비, 1994/1995.
 28. Ramstedt, G. J., *Studies in Korean Etymology*, Suomalais Ugrilainen Seura, 1949.
 29. Reber, A. R., *Penguin dictionary of psychology*, (2nd edition). Penguin Books, 1995.
 30. Wilder, R. L., *Evolution of mathematical concepts: an elementary concepts*, John Wiley & Sons, Inc., 1968.
 31. Whitney, P., 언어심리학, 이승복, 한기선(역), 시그마프레스, 1999.
 32. <http://www.ethnologue.com>
 33. <http://www.ijunoon.com/balochidic/>
 34. <http://www.koreanpsychology.or.kr/>

35. <http://www.namonet.com>

36. <http://www.zompist.com/numbers.htm>

A math-historical outlook on etymology of korean number words: from hana(one) to yeol(ten)

Dept. of Math. Education, Gyeongin Nat'l Univ. of Education Kyo Sik Park

In this study, the research results up to now on original word form and its meaning of Korean number words hana, dul, ..., yeol are looked out from math-historically. In fact, finding out original word form and its meaning of hana, dul, and set(ses) may not be possible in the respect of history of mathematics. There might have been a gap between set(ses) and net(nes), and between net(nes) and daseot(daseos). Original word form and its meaning of hana, dul, set(ses), and net(nes) must be found out in different aspect from those of daseot(daseos), yeoseot(yeoseos), ..., yeol. There might have been a gap between yeoseot(yeoseos) and ilgop(ilgob). Coining number word mechanism for ilgop(ilgob), yeodeol(yeodeolb), and ahop(ahob) might have been same each other. There might have been a gap between ahop(ahob) and yeol. The research results up to now have not paid attention to this gaps sufficiently. But according to history of mathematics, there must have existed several gaps.

Key words : development of numerals, etymology of number word, math-historical perspective, number word

200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 01A10, 01A13

ZDM Subject Classification : A30

접수일 : 2008년 4월 18일 수정일 : 2008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 2008년 6월 1일